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6.(월) 23:00 배포 2026. 11. 16.(월)

# 기후부-글로벌녹색성장기구, 녹색성장 협력 넓혀 에너지전환 함께 지원

-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1) 계기 녹색성장 협력 양해각서 개정·체결…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협력 범위 확대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1, 11월 9~20일)를 계기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(GGGI, 사무총장 김상협)와 '녹색성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'를 개정해 11월 16일 오후 현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양해각서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 범위를 반영해 협력 분야를 넓히고, 양 기관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.

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2012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국제기구로 출범해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,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, 녹색 투자 사업 발굴 및 재원 조성,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.

개정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의 녹색성장·기후 적응 사업 개발, 온실가스 감축, 역량강화 분야에 더해 에너지전환, 순환경제,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, 국제 탄소시장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. 특히 파리협정 제6.2조 이행 지원 등 국제 탄소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,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계획 수립과 녹색 분야 공공·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.

또한, 양 기관은 기술지원·이전, 정책자문, 지식공유, 인력 파견·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,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“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하고 서울에 본부를 둔 기후·녹색성장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”라며, “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고,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. 끝.

| 담당 부서 | 기후에너지환경부<br>국제협력과 | 책임자 | 과 장 | 권영희 (044-201-656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김도훈 (044-201-6575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붙임** **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**

○ **(명칭)**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간 녹색성장 협력에 관한 개정 양해각서

○ **(목적)** 지속가능발전,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 및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

○ **(개요)** 녹색성장 협력에 관한 서문 및 9개 조항으로 구성, '21.11.3. 체결 양해각서를 개정

○ **(체결주체)**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- 글로벌녹색성장기구(GGGI) 사무총장

○ **(협력분야)** ①국가·지역 단위 녹색성장 계획·재원조달·제도 기반 강화, ②녹색 공공·민간 투자 확대, ③녹색성장 관련 남남협력 및 3자간 협력 촉진, ④공동연구·분석 등을 통한 녹색성장 리더십 강화, ⑤ODA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·수자원 관리·온실가스 감축·기후 회복력 사업 개발·이행, ⑥파리협정 제6.2조 이행 및 국제 탄소시장 준비, ⑦수소경제·정의로운 에너지전환·순환경제, ⑧지식공유·네트워킹·역량강화, ⑨인력 파견·교류 등 기관 역량 강화

○ **(협력방식)** ①기술지원·이전 및 정책자문, ②지식공유·네트워킹·역량강화, ③직원 파견 및 교류, ④ODA 사업 공동 개발·관리 및 이행, ⑤개별 사업별 세부 약정 체결

○ **(일반사항)** 비밀유지, 청렴·윤리 및 환경·사회적 지속가능성 준수, 유효기간 5년 등